ECONOMY

2025년 5월 20일 화요일

광산업 유망기업들, 일본시장 공략 '속도'

광융합진흥회, 시장개척단 파견 550만 달러 계약
현지기업과 신규 프로젝트 발굴·협력방안 마련도

국내 광산업 유망기업들의 일본시장 공략이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일본 시장 공략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지역에 '2025 일본 광융합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총 550만 달러(한화 약 77억원) 구매계약 성과를 거뒀다.

이번 일본 광융합 시장개척단에는 ㈜우리로(광분배기), ㈜달빛엘이디(DC베이스 조명), ㈜다온씨앤티(스마트팜 제어시스템), ㈜유비넷시스(재난용 배터리팩), ㈜남전(LED 십자등) 등 국내 기업 5개사가 참가, 일본에서 꾸준한 수요가 있는 광융합 분야 우수제품을 선보였다.

먼저, 신주쿠에서 개최된 수출상담회에서는 일본 유망 바이어 33개사가 참석, 75건의 수출상담을 통해 ㈜달빛엘이디(이현효 대표) 300만 달러, ㈜다온씨앤티(황진국 대표) 150만 달러, ㈜유비넷시스(이진주 대표) 100만 달러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550만 달러의 계약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과 함께 일본 광융합산업 분야 기업 11개사를 방문, 제품생산 및 설치 현장을 답사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시장진출을 위해 현지 기업 간 신규 프로젝트 발굴 및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는 일본 사단법인 에코파(Ecofa) 추진기구 및 LED광원보급개발기구(DLEDA)와 업무협약을 체결, 양 기관과 함께 광융합산업 관련 정보·기술교류, 상호 프로젝트 협력, 무역 박람회 및 전시회 참여 지원 등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일본 광융합 시장개척단은 국내 참여기업들에게 일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 유망바이어 발굴 및 수출 판로 확대에 있어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동근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국내·외 경기 악재 속에서도 광융합분야 신기술·우수제품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에게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시장개척단을 통해 발굴한 현지 바이어들을 10월 30~3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PHOTONICS KOREA 2025 (제23회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에 초청, 수출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aT, 농산물 온라인마케터 육성
30일까지 참여업체 250곳 모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가의 온라인 거래 역량 제고와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 온라인 마케터 육성 사업' 참여사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국산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농가 또는 기업이며, 모집 규모는 일반 농가·기업 200여개소, 친환경 농가·기업 50여개소다.

선정된 참여사에는 △온라인 입점·마케팅 교육 △1대 1 맞춤형 컨설팅 △상세페이지 또는 영상 제작 △주요 온라인 유통사와 연계한 '농부가 바로팜' 기획전 참여 등이 제공된다. 모든 참여사는 교육 과정을 최소 1개 이상 이수해야 하며, 지원 항목은 차등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AI를 활용한 농식품 마케팅 실무 교육을 포함하고, 우수 사업 참여사에는 라이브커머스 지원이나 유튜브를 활용한 홍보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운도 aT 유통이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생산자들이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온라인 시장에서 판로를 확대해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 방법과 자세한 안내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누리집(www.at.or.kr) '유통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홍 기자 photo25@

'모노바디 기반 키메라 항원 수용체' 日 특허
박셀바이오-전남대 공동개발…고형암 치료 기술 속도

항암면역치료제 전문기업 박셀바이오는 모노바디 기반 키메라 항원 수용체(CAR, Chimeric Antigen Receptor) 기술에 대한 특허를 일본 특허청에 정식 등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등록된 NK세포 증식 기술 특허에 이은 두 번째 일본 특허로, 한 달 사이 두 건의 면역세포치료제 관련 핵심 기술이 일본에서 공식 인정받은 것이다.

이번 특허는 박셀바이오가 전남대학교와 공동 개발해 지난 4월 국내 등록을 완료한 기술이다. 고형암에서 과발현되는 표적 단백질 EphA2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모노바디를 기반으로 한다. 모노바디는 항체 대비 구조가 단순하고 세포 내 발현이 용이해 차세대 CAR 치료제의 유망한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박셀바이오는 해당 기술을 자사 CAR 치료제 플랫폼에 적용, 고형암을 대상으로 치료 효능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한 차세대 CAR 면역세포치료제 'VCB-1202'의 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제중 박셀바이오 대표는 "앞으로도 고형암 치료의 새 기준을 제시하며 글로벌 상업화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

광주신세계, 초슬림 '갤럭시S25 엣지' 사전구매 행사 광주신세계는 본관 8층 삼성스토어와 1층 팝업매장에서 프리미엄 초슬림 디자인의 '갤럭시 S25 엣지(Edge)' 사전구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갤럭시 S25 엣지는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 가장 얇은 5.8㎜ 두께의 슬림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티타늄 프레임으로 탄탄하고 강력한 내구성의 전후면 글래스에 2억 화소 초고해상도 후면 카메라는 전문가급 퀄리티를 보장한다.

KT-남광주시장상인회, 전통시장 활성화 '맞손'

홍보·디지털 전환 협약
이벤트 등 정보 전달도

KT 전남전북광역본부는 최근 남광주시장상인회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T 전남전북광역본부는 최근 남광주시장상인회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KT는 남광주 전통시장에 대한 홍보 활동을 추진, 방문 고객 확대를 도모하고 시장 내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KT는 남광주 전통시장의 홍보영상을 제작, 자사 IPTV 서비스인 지니 TV 우리동네(Ch.111)를 통해 방영하고 있다. '지니 TV 우리동네'는 지니 TV 시청자에게 유용한 지역정보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장을 홍보하는 TV기반 소상공인 마케팅 서비스로, 소비자는 해당 채널을 통해 시장 정보, 각 매장의 영업시간, 이벤트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태오 KT 광주지사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소상공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승기 남광주시장상인회장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방문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KT가 실질적인 도움을 줘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남광주 전통시장이 더욱 성장하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신협,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금융 지원 강화
햇살론 플러스 취급…가산금리 최대 2.5%p 이내

신협중앙회는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플러스'를 전국 영업점에서 취급한다고 19일 밝혔다.

'햇살론 플러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운영지침에 따라 신협중앙회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간 업무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보증부 정책자금 대출이다.

특히 이번 상품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비율이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됨에 따라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최대 2.5%p 이내의 가산금리가 적용돼 기존 햇살론 대비 낮은 수준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자영업자 또는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NICE 기준) 이 744점 이하인 저신용 자영업자다.

운영자금은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기존 대출의 대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조용록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본부장은 "햇살론 플러스가 금융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신용보증재단은 햇살론 플러스를 운영하지 않음에 따라 세종지역 조합은 취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GICON, 기업맞춤형 인력양성
내달 12일까지 참여업체 모집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다음달 12일까지 '기업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사업'에 참여할 호남지역 AI·ICT 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업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공동 추진하는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 일환으로, 기업 현장에 적합한 실무형 교육을 통해 신규 인재의 직무역량을 높이고, 호남지역 AI·ICT 기업의 인재 확보와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이 목표다.

모집 대상은 광주시, 전북도, 전남도, 제주도에 위치한 AI 및 ICT 관련 기업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신규 인력 1인당 최대 300만원(기업당 최대 2인)의 현장실무 교육 강사료가 지원된다. 송대웅 기자